

로컬뉴스

군산시, 지진·해일 대응훈련

군산해경, 주말 사고 10여건 처리

지난 주말 전북도 해상에서 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은 지난 27일 오후 2시에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술집'에서 비닷물에 갇혀 고립된 강모(30·남)씨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어청도 남동방 17해리(약 31km)해상에서 9.7톤급 안강방 선원 B씨(36·남 인도네시아)가 얼굴을 크게 다쳐 해경이 경비정용을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앞선 28일 오전 9시에 왕등도 남서방 34해리(약54km) 해상에서 71톤급 요영어호(중구선적)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급파해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주말동안 불법조업으로 어선 3척을 검거하고 안전관리위반 선박 2척을 검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오늘 오후2시 비응항 인근 해상과 육상에서 실시

군산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과 육상에서 전라북도 서해해경본부, 군산소방서와 공동 주관하고 15개 유관기관 350여명이 참여하는 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서해 연안에서도 최근 5년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총 17회가 발생하는 등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산 앞 바다에서 해저지진이나 폭풍에 의해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기상청 지진해일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군산시, 군산해양안전서, 군산소방서 등 각 유관기관의 상황 전

파, 해양안전서의 대책본부, 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의 초기상황과 주민 및 선박 대피, 피해 예상지역의 출입 통제 등 지진해일 대응 매뉴얼 적용 훈련을 할 계획이다. 또 해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선박 간 충돌, 화재, 침수, 전력시설 파손 등에 따른 인명구조, 화재진압, 시설복구 및 재해쓰레기 처리 등이 훈련내용으로 다뤄진다. 군산시는 이번 대규모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해일 매뉴얼을 작동해 대응능력을 키워 나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지진해일 대응 훈련으로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재난발생시 초동 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천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관내 소방차, 구급차, 유관기관의 긴급출동차량과 해경경비함정 6척, 헬기 2대 등이 동원되며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교육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농협 익산지부, 농업인 고충해결 이동상담 실시

농협 익산지부(지부장 송기무)는 "지난 25일 익산시 관내농업인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 및 결혼이주여성의 개명지원 등을 위해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강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업사업이다. 농협은 19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전국의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130,000여명의 농업인 교육 및 10,000명 이상의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16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익산시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주변호사와 한국소비자의 박인용 교수 등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피해구조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국적 취득자에 대한 상환장설 및 개명관련 현장상담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농협 익산지부 송기무 지부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

익산경찰서(서장 이종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관내 금융기관 32개소를 직접 방문,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보이콧피싱 근절을 위한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신고 및 대처요령이 담긴 전단지 배부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금융기관을 방문, 최근 발생사례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창구 직원들에게는 고객 인출시 사용처를 묻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노인층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내 부모처럼 관심을 기울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게 되면 112신고로 꼭 돌려야 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순항

현재 공정률 65%로 6월 완공 계획 대로 진행

익산시는 지난해 4월 공사를 착공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현재 공정률 65%로 올 6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주얼리 집적산업센터는 국비를 포함 한 총 사업비 121억원을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4층 7,074㎡ 규모로 공장(37실)과 소매점(8실)이 조성된다.

국내복귀기업 등 주얼리 기업들에게 중간제품 납품과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서울, 부산 등에 소재한 9개 협력업체 등이 21개실에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는 향후 서울 종로와 남대문을 비롯한 선내동 경기 구리시 등을 상대로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투자여력이 약한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입주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권한대행 한용재 부시장은 "향후 주얼리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

도록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얼리 기업들이 익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소방서, 투·개표소 소방조사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개표소 등 선거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투표소 27개소와 투표소 85개소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점검 확인 사항은 ▲투·개표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여부와 고장상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수행실태 확인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초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병원, 유방암 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유방암 환우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어깨관절의 운동장애와 통증, 팔 내측 저림 증상 림프부종 유발로 인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암센터 주관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유방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통증조절, 림프부종 예방, 관절운동 방법 등 재활에 필요한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동안 3회차 행사를 거쳐 오는 30

일 병동1관 1층 암센터 내 회의실에서 오후 2시 마지막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날은 "림프부종이란? 림프부종의 예방 및 관리방법(물리치료사 이원진)", "유방암 환자의 재활 관리 방법 및 증진과 근력강화 운동 방법(작업치료사 정유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 및 보호자, 가족들은 원광대학교병원 암센터 외래(033-859-1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군산시는 출생신고 시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출산 관련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넷째아이이상 육아용품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전기·가스요금 경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처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기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통합신청 접수처에 제출하면 한 장으로 출산관련 5종의 서비스가 일괄처리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대중가요로 돌아보는 군산이야기'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서 선보일 예정

군산시가 군산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노래한 '대중가요로 돌아보는 군산이야기' 발굴에 나섰다. 대중가요로 돌아보는 군산이야기는 군산을 모티브로한 노래들을 수집·홍보함으로써 대중의 관심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애환심을 고취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960년대 발표된 군산을 소재로 한 노래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애를 태우는 사랑과 이별의 노랫말이 주를 이루며 당시 시대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군산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대중가요는 국민가수 이미지의 '금강나그네'와 '남' 때만 금강 군산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립예술단을 통해 근대역사박물관 상설무대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 시 군산을 소재로 한 노래 중 일부를 플레시오프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군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 중 일부 곡을 편곡하거나 작곡해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활용하며,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등 대중이 일상생활에 노래를 송출하여 우리는 군산이라는 정체성과 애환심을 고취하고자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를 모티브로한 대중가요는 시대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근대화도시 군산을 노래를 통해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30년 짜리 찌든때 막힘
- 스물~스물 올리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세스 (100~150cm) 배수구 크기에 맞춰 사용하십시오. (배수구 크기에 맞춰 사용하십시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구 청소는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

신뢰를 쌓아 올리고 싶다면

신뢰를 쌓아 올리고 싶다면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되면

비즈니스가 되면

수익

수익을 올리면

수익을 올리면

시간

시간을 절약하면

시간을 절약하면